

전주표(標) 슬로시티 도시브랜드 구축

시, 슬로라이프 시민교육·아젠다 발신 중심 등 5대 핵심 전략 추진

전주시가 인구 60만 도시 중 세계 최초로 도시 전역이 국제슬로시티로 확대·재지정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청사진을 마련하고 전주만의 슬로시티 도시브랜드를 구축할 계획이다.

12일 전주시에 따르면 슬로시티 전주 제2기 마스터플랜 발전방안(이하 마스터플랜)을 마련하고 시정 핵심 가치인 '아시아 문화 심장터 조성 구현'을 위해 추진해야 할 국제슬로시티 전주 도시브랜드화의 핵심적인 방향을 확정했다.

이번 마스터플랜 용역은 지난해 4월 슬로시티 재인증 당시 기존 한옥마을에서 전주시 전역으로 국제슬로시티

로 확대된데 따른 발전전략을 제안하고,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도심형 슬로시티이자 정신문화의 수도인 전주의 제2기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됐다.

시와 수행기관인 한국슬로시티본부는 슬로시티전주의 제2기 마스터플랜 비전을 '국제 도심형 슬로시티의 수도'로 설정하고, 지속적인 정체성 확보를 위해 △슬로라이프 시민교육 △국제슬로시티 아젠다 발신의 중심 △슬로 산업 혁명 △슬로 복지 △타도 시와 연대강화 등 5대 핵심 전략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극대화하기 위해 △슬로공동체

역량강화 △슬로시티 관광자원화 △슬로시티 파트너십 △전략적인 홍보 마케팅 등 4가지 분야의 8개 핵심 사업 8개를 추진할 예정이다.

시는 전주의 행복유산의 발견과 전승이라는 대전제에 초점을 맞춰 △시민이 슬로라이프 스타일의 생활양식으로 △행정이 슬로시티를 행복 배분 정책으로 △경계가 슬로시티를 산업으로 △방문객은 슬로시티를 제2의 고향으로 각각 만들어 느낌을 통해 행복을 가져올 수 있도록 핵심 실행 사업을 구체화했다.

이를 위해, 시는 전주시민 전체가 참여하는 슬로시티 시민운동 추진 및

정책 구현을 위해 슬로시티 전담팀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슬로시티 운동이 도시 전역에서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기존의 주민협의회에 다양성과 전문성을 전제로 한 역할 있는 슬로시티 시민협의회를 구성하고 시민이 실천하는 슬로전주 만들기를 위한 협의체 활동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슬로시티로서 국제 회원도시간의 인적 교류 및 공동문제 해결을 선도하고, 슬로시티 트렌드와 정보 아이디어의 생산·발신하는 도시가 되기 위해 올해 슬로시티 회원도시 대표와, 학자, 전문가들과 네트워크를 구축, 2017년 슬로시티 전주 포럼&어워즈도 개최할 예정이다.

/김영재 기자

전주시, 새해 달라지는 50여개 시책 추진

전주시가 2017년 새해 달라지거나 새롭게 추진되는 시책들 중 시민생활에 유익한 6개 분야 50여개 시책을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

시는 올해부터 달라진 제도와 시책을 소개한 책자 '2017 달라지는 시정,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해 각 동 주민센터 등에 비치했다고 12일 밝혔다.

내년부터 달라지는 전주시의 주요 행정제도와 시책은 세제와 민원·일반 행정, 보건·복지, 산업·경제, 건설·교통·환경, 문화·관광 등 모두 6개 분야다.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세제분야에서는 기존 예금계좌 자동이체만 가능했던 지방세 납부가 오는 6월부터는 납세자 편의를 위해 신용카드를 이용한 자동이체가 가능해진다. 또 오는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10년 이상된 노후 차량을 신규로 구매할 때 차량 소유자가 폐차·말소 등록하고 신차 취득시에는 취득세가 최고 100만원까지 감면된다. 대상 노후차 기준은 신규차량 등록일이 2006. 12. 31 이전이며, 노후차 말소일과 신규차 등록일은 2017. 1. 1.~6. 30까지 6개월간이다.

민원·일반행정 분야에서는 기존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신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했으나 올해부터는 신청인이 원할 경우 신청인의 지문을 전산자료와 대조하는 방법으로 대신할 수 있다.

또한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해 생명·신체·재산·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피해우려자들은 주민등록번호를 변경신청이 가능하다. 최종 변경여부는 행정자치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의의를 거쳐 결정된다.

보건·복지 분야의 경우 실내 체육 시설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2017년 12월부터는 당구장과 실내골프장 등 등록·신고 체육시설 중 실내 체육시

설 금연구역이 확대된다. 또 어린이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대상이 기존 생후 6개월~12개월에서 오는 10월부터는 생후 6개월~59개월로 확대된다.

산업·경제 분야에서는 전국 학교의 무상급식비가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수준과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해 200원 인상된다.

이와 함께, 농업재해보험 대상품목 및 보장범위도 확대된다. 오는 2017년 2월부터 농작물재해보험은 기존 66개 대상품목에서 시설축산과 무화과, 유자, 메밀 브로콜리가 추가된 71개 품목으로 늘어나며, 현재 특정위험만 보장이 가능한 과수 5종(사과, 배, 단감, 뽕, 감, 감귤)에 대해서도 종합위험보장방식이 오는 2018년까지 순차적으로 도입된다.

건설·교통·환경 분야에서는 오는 2월 20일부터 전주·완주 시내버스가 새롭게 개편된 시내버스노선으로 운행된다.

버스승강장 및 주행차로 불법 주정차로 인한 시민들의 안전사고 예방과 교통혼잡을 해소하기 위해 시내버스에 차량번호인식용 카메라를 설치·운영하는 불법주정차 자동단속시스템이 오는 3월까지 시범 운영 후 4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또 카드 한장으로 싸고 편하게 전북 관광을 누리는 전북투어패스가 도내 모든 시·군으로 확대 운영되며, 종류도 5가지로 늘어나게 된다. 전북 투어패스카드를 이용하면 △자유이용시설 60개소 무료입장 등 방문객에게 보다 편안하고 다채로운 경험을 제공할 예정이다.

책자는 양 구청 민원실 및 각 동 주민센터에 배포되며, 제도 변경 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주시 홈페이지(www.jonju.go.kr)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김영재 기자

여고생에 강도·성추행한 30대에 징역 3년 6개월형

전주지법 근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성기권)는 12일 혼자 길을 걷는 여고생을 상대로 강도짓과 성추행을 한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34)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하고 10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정씨는 지난해 7월 15일 오후 9시40분경 전북 익산시 모현동 소재의 한 육고에서 여고생 A양(18)을 위협해 현금 1만2,000원을 빼앗고 몸을 더듬는 등 추행을 한 뒤 도망가려한 A양을 잡아 넘어뜨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 조사결과 정씨는 4월 8일 익산시 남중동의 한 가정집에 4차례에 걸쳐 몰래 침입해 15만원 상당의 물품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성인으로서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도덕을 형성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이끌어 줄 사회적 책무가 있음에도 오히려 자신의 왜곡된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해 나이가 어린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했다"며 "이로 인해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었던 피해자가 받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미 절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음에도 재차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김민근 기자

정씨는 지난해 7월 15일 오후 9시40분경 전북 익산시 모현동 소재의 한 육고에서 여고생 A양(18)을 위협해 현금 1만2,000원을 빼앗고 몸을 더듬는 등 추행을 한 뒤 도망가려한 A양을 잡아 넘어뜨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 조사결과 정씨는 4월 8일 익산시 남중동의 한 가정집에 4차례에 걸쳐 몰래 침입해 15만원 상당의 물품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성인으로서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도덕을 형성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이끌어 줄 사회적 책무가 있음에도 오히려 자신의 왜곡된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해 나이가 어린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했다"며 "이로 인해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었던 피해자가 받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미 절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음에도 재차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김민근 기자

정씨는 지난해 7월 15일 오후 9시40분경 전북 익산시 모현동 소재의 한 육고에서 여고생 A양(18)을 위협해 현금 1만2,000원을 빼앗고 몸을 더듬는 등 추행을 한 뒤 도망가려한 A양을 잡아 넘어뜨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 조사결과 정씨는 4월 8일 익산시 남중동의 한 가정집에 4차례에 걸쳐 몰래 침입해 15만원 상당의 물품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성인으로서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도덕을 형성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이끌어 줄 사회적 책무가 있음에도 오히려 자신의 왜곡된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해 나이가 어린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했다"며 "이로 인해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었던 피해자가 받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미 절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음에도 재차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김민근 기자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세제분야에서는 기존 예금계좌 자동이체만 가능했던 지방세 납부가 오는 6월부터는 납세자 편의를 위해 신용카드를 이용한 자동이체가 가능해진다. 또 오는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10년 이상된 노후 차량을 신규로 구매할 때 차량 소유자가 폐차·말소 등록하고 신차 취득시에는 취득세가 최고 100만원까지 감면된다. 대상 노후차 기준은 신규차량 등록일이 2006. 12. 31 이전이며, 노후차 말소일과 신규차 등록일은 2017. 1. 1.~6. 30까지 6개월간이다.

민원·일반행정 분야에서는 기존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신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했으나 올해부터는 신청인이 원할 경우 신청인의 지문을 전산자료와 대조하는 방법으로 대신할 수 있다.

또한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해 생명·신체·재산·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피해우려자들은 주민등록번호를 변경신청이 가능하다. 최종 변경여부는 행정자치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의의를 거쳐 결정된다.

보건·복지 분야의 경우 실내 체육 시설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2017년 12월부터는 당구장과 실내골프장 등 등록·신고 체육시설 중 실내 체육시

설 금연구역이 확대된다. 또 어린이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대상이 기존 생후 6개월~12개월에서 오는 10월부터는 생후 6개월~59개월로 확대된다.

산업·경제 분야에서는 전국 학교의 무상급식비가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수준과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해 200원 인상된다.

이와 함께, 농업재해보험 대상품목 및 보장범위도 확대된다. 오는 2017년 2월부터 농작물재해보험은 기존 66개 대상품목에서 시설축산과 무화과, 유자, 메밀 브로콜리가 추가된 71개 품목으로 늘어나며, 현재 특정위험만 보장 가능한 과수 5종(사과, 배, 단감, 뽕, 감, 감귤)에 대해서도 종합위험보장방식이 오는 2018년까지 순차적으로 도입된다.

건설·교통·환경 분야에서는 오는 2월 20일부터 전주·완주 시내버스가 새롭게 개편된 시내버스노선으로 운행된다.

버스승강장 및 주행차로 불법 주정차로 인한 시민들의 안전사고 예방과 교통혼잡을 해소하기 위해 시내버스에 차량번호인식용 카메라를 설치·운영하는 불법주정차 자동단속시스템이 오는 3월까지 시범 운영 후 4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또 카드 한장으로 싸고 편하게 전북 관광을 누리는 전북투어패스가 도내 모든 시·군으로 확대 운영되며, 종류도 5가지로 늘어나게 된다. 전북 투어패스카드를 이용하면 △자유이용시설 60개소 무료입장 등 방문객에게 보다 편안하고 다채로운 경험을 제공할 예정이다.

책자는 양 구청 민원실 및 각 동 주민센터에 배포되며, 제도 변경 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주시 홈페이지(www.jonju.go.kr)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김영재 기자

농업기술보급 시범사업 설명회

전주시농업기술센터는 12일 전주시 지역 품목별농업인단체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7년 농업기술보급 시범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농업기술센터는 올 한해 전주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상품성 향상을 적극 지원, 시민과 함께하는 농업, 활력 넘치는 전주농업을 실현해 나갈 계획을 설명했다.

시는 올해 농업기술보급 시범사업으로 △농촌자원분야 5개 사업 △식량작물분야 8개 사업 △원예작물 분야 17개 사업 △도시농업분야 2개 사업 등 총 27개 사업에 19억원을 투입, 전주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상품성을 높일 계획이다.

/김영재 기자

전주시, 주민등록 일제정리 실시

전주시는 시민들에게 행정편의를 제공하고 일선 행정기관의 효율적인 행정업무 수행을 위해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실시한다.

시는 오는 16일부터 3월 24일까지 68일간 시민의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되도록 정리는 2017년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주민등록 일제정리는 통장 및 통당 공무원으로 편성된 합동조사반이 전체 세대를 방문해 세대명부와 실제 거주사실을 대조해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100세 이상 고령자의 거주 및 생존여부 등을 조사하게 된다.

/김영재 기자



전주시는 12일 전주시청에서 김승수 전주시장과 신효근(사)러브인월드 이사장 등 '저소득층 치과치료 봉사활동'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전주시-러브인월드 치과치료 업무협약

저소득층 가정 대상

전주시는 12일 전주시청에서 김승수 전주시장과 신효근(사)러브인월드 이사장 등 양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어려운 환경에서 생활하는 저소득층 가정의 치아건강을 위한 '저소득층 치과치료 봉사활동'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저소득층 치과치료 봉사활동 업무협약은 러브인월드 회원 중 의료분야 후원 회원들의 재능 기부 활동을 통해 취약계층에게 무료 전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

면서 성사됐다.

시는 앞으로 경제적 어려움으로 치과진료를 받기 어려운 지원대 상자를 발굴·추천하고, (사)러브인월드는 대상자에게 기초검진 및 치료 진료 의료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러브인월드는 이 사업을 통해, 매월 1차례씩 치과치료가 어려운 저소득층을 선정해 임플란트와 틀니 등 시술 및 치료를 무료로 제공하기로 했다.

신효근 러브인월드 이사장은 "의료 사각지대인 저소득층에게 의료지원 제공으로 원활한 사회 활동을 유도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 우리 이웃들의 치아건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한다"면서 "앞으로도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전주시 생활복지과 관계자는 "저소득층의 치아 건강 증진과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무료 의료서비스를 후원해 주신 (사)러브인월드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앞으로도 저소득층의 의료복지 향상과 살맛나는 전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재 기자

Jeonju Crime Victim Support Center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당신이 웃는 내일을 희망합니다"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범죄피해의 고통을 상담지원, 법률, 의료, 환경개선 지원 등을 통해 범죄가 있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국번없이

1577-1295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방문상담, 예약상담 등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연말연시와 공휴일 제외)
상담시간 : 10:00~17:00

전주지방경찰청
(사)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 (063) 276-8804, 8828
전주시 덕진구 사평로 25(덕진동 17가) 전주지방경찰청 신관 152호
*홈페이지 : www.jjvs.or.kr *전자우편 : jjvs@hanmail.net